

대전디자인진흥원, AI 원스톱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교육 수료식 성료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6.04.27 12:50

광고·마케팅 및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로 취업 경쟁력 높여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AI 원스톱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교육' 수료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4일 지역 패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한 'AI 원스톱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교육'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지역 청년들이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과 최신 산업 트렌드를 교육 과정에 접목해, 급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청년들이 스마트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3월 20일부터 6주간 운영됐으며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지역 내 주요 대학의 패션 전공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1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쌓았다.

참여 교육생들은 패션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획, 시장 조사 및 타겟 분석,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기획과 스타일 구성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패션 인재들이 AI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생 패션 브랜드 발굴과 지원을 통해 대전의 패션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교육 수료생들을 포함해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진·중견 디자이너 협업 패션컬렉션 개최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